

# 독일 베를린시 산림학교(Waldschule)의 환경교육 운영 실태

김기원 · 이재영  
(국민대학교 · 공주대학교)

## 1. 서 론

교육의 효과는 교육내용에 대한 직접적 체험이 있을 때 더욱 커진다. 현장 교육이 중심이 되는 환경교육은 환경을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이해하도록 하는 체험학습이다.

독일의 경우 시민사회의 환경의식은 지난 세기부터 있어왔던 환경교육의 전통 속에 맥이 닿아 있으며, 1920년대의 정원학교운동이나 1950년대와 60년대의 녹지 속의 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환경문제, 특히 오염으로 인해 숲이 죽어가는 문제(Waldsterben: 숲의 죽음)가 크게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심각히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림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된 목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의 일상생활로부터의 전환과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게 될 자연과의 신뢰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산림학교는 대개 1) 숲의 죽음 대신 숲의 삶(Waldleben statt Waldsterben), 2) (학교에서와 같은) 교육 매체의 배척, 3) 비 성과 경쟁 등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숲도 인간처럼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숲속에서는 복잡한 교보재없이 숲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교보재로 교육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숲에서 체험 학습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아이들이 학교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연을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본 글은 현재 베를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학교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한층 무르익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산림학교의 활동현황

### 가. 역사와 출현배경: 스위스 취리히市 실 산림학교(Sihlwaldschule)

독일어권에 있어서 산림학교는 스위스 취리히市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취리히市 실 숲 (Sihlwald)에 있는 산림학교가 선구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 학교는 무엇보다도 슈파이흐(Speich)라는 취리히市 산림공무원의 공로로 태동한 것이다. 1970~80년대 당시부터 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의 하나였던 것은 오염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문제였다.

시의 산림 공무원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실 숲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의 산림이용(경영) 방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86년에 산림학교가 탄생할 수 있게 된다. 처음 2년간의 개척시기를 지나면서 부터는 1년 중 3~4개월 정도는 예약이 끝나게 되는 성공적인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점차 사람들이 늘자 취리히 시에서는 두 개의 학교를 더 개설하게 되었고 현재는 연간 450개 학급이 하루를 숲에서 보내고 있으며, 1년 중 9개월 예약이 이미 끝난 상태가 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산림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습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산림학교 프로그램의 중점은 숲을 감성적으로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교수법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1) 긍정적인 자연과의 만남이 자연 속에서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유지시켜 준다.
- 2) 교육매체의 배척 즉, 비디오, 슬라이드, 학습지, 지정된 책 등 교보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3) 어린이는 혼자서 자연에 몰두하도록 하고 다른 아이와 더불어 붙어있지 않게 한다.

여기서는 아무런 경쟁도 없다. 다루게 될 주제는 학교 선생님들과 미리 이야기되며 학년과 계절에 알맞게 선정된다.

산림학교의 목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신뢰성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또한, 기대하는 사항의 하나는 자연 속에서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커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숲 속에 하루를 보냈던 것을 기억케 하여 산림황폐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나. 베를린시의 산림학교 탄생

독일에 있는 산림학교도 스위스 산림학교의 발전과정을 본보기로 삼아 탄생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기초적인 형태의 산림교육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또 일반적인 환경 교육도 그동안 생겨난 여러 환경 단체들에 의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즉, 현재 베를린시 도시개발국 산하의 산림학교의 하나인 토이플 호수에 있는 레르카비넛 산림학교(Waldschule Lehrkabinett Teufelssee)는 1972년에, 그리고 독일 산림보호회(SDW)가 운영하는 그뤼네 숲 안에 있는 산림학교는 1973년에 그 원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산림학교(Waldschule)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산림환경교육을 진행한 것은 스위스 산림학교의 영향을 받은 이후인 것으로 생각된다.

베를린시의 경우도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산림 공무원이 먼저 숲에 대한 환경 및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탄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베를린시 도시개발국의 산림분야 담당 공무원인 라켄베르그(K. Lakenberg) 여사의 제안에 의해 시 관할 산림구역에 6개의 산림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Waldschule Spandau(1991), Waldschule Bogensee(1998), Waldschule Bucher Forst(1998), Waldschule Zehlendorf(1996), Waldschule Lehrkabinett Teufelssee(1992), Waldschule Plaenterwald(1998) 등 6군데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시설로 설립된 것이다. 이 시설들이 설립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창출대책(Arbeitsbeschaffungsmassnahme: ABM), 즉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적 측면도 작용했다고 한다.

## 다. 산림학교의 교육

### 1) 기본이념

산림학교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교육 체계 속의 학교와는 매우 다르다. 산림학교에서는 자기의 다섯 가지 감각을 활성화하는 것을 배운다. 즉, 붙잡아 접촉하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보고, 느낀다. 체험과 휴양의 장소인 숲에 가서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숲을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위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산림학교에서는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숲 속에서 서로간의 관계와 상관성을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개개 생명체와 다른 것들과의 책임있는 만남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감각을 자극하는 것도 산림학교가 수행하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 2) 교육 방법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산림학교는 미국의 조셉 코넬(Joseph Cornell)에 의해 널리 알려진 체험학습을 지향하고 실제로도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가) 사용하는 교보재

대부분 숲과 산림학교의 시설을 사용한다.

#### 나) 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대상은 학생의 경우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며, 일반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시, 숲과 산림학교를 통한 해설 안내, 특정 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의 날 운영, 강연, 시민자문, 환경보호와 산림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행사, 슬라이드와 필름 상영, 그리고 정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심화교육 등을 실시한다.

#### 다) 교사들

산림학교에는 산림관(산림공무원), 자연과학자, 조경계획가, 교육자, 예술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상근자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때마다 산림학교의 요청에 의해 비상근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비상근자, 특히 예술가들과는 상호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있으며 늘 연락이 닿도록 연락

망이 잘 조직되어 있다. 산림공무원인 경우 산림학교가 대개는 관할구역 안의 산림관리 사무소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상근자가 아니더라도 늘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 라) 교육의 진행

어린이들은 대개 아침 8시 30분전에 도착하고 준비해 온 아침을 먹으면서 대기한다. 어린이들은 물론 학교 교사가 인솔하여 오지만 자원봉사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들이 같이 동행한다. 9시경에 산림학교 교사가 인솔하여 숲으로 간다. 숲으로 이동할 때에도 단지 무미건조하게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정 자체에 의미와 재미를 부여한다. 예를 든다면 줄지어 함께 움직이는 재미, 혹은 애플레의 이동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들이 그들을 흉내 내면서 이동하게 한다.

숲 속의 특별한 장소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한 교육 내용에 따라서 숲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들어보고, 보면서 감각을 이용하여 나무와 숲을 체험하도록 하며, 놀이를 통해서 자연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건으로 가리고 나무를 더듬으며 촉감으로 경험하는 것은 대중화된 교육방법이다.

숲 속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실내로 들어와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한다. 숲 속 교육보다 실내 교육을 먼저 하는 곳도 있다. 실내에서도 역시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숲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동식물의 표본들이 준비되어 있다. 잎이나 열매를 진열하여 놓고 어떤 나무의 것인지 알아 맞추기, 동물의 발자국 알아 맞추기, 냄새 맡기 등 다양하고 흥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실내에 있는 교사는 어린이들이 풀어본 문제들을 확인하고 설명하여 준다.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책자도 갖춰져 있다.

#### 마) 교육시간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1년에 6~8차례 정도 현장 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학교 정규 학습의 하나로 한 학기에 3~4일 정도 산림학교 등으 와서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짧게는 반나절에서부터 하루 종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 라. 산림학교의 조직과 운영

베를린시에 있는 산림학교(원어로 Waldschule로 표기된 것)는 민간시설이다. 그러나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관주도의 산림학교와 환경단체 주도의 산림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관 주도의 산림학교는 베를린 주정부(시) 도시개발국의 산림관리소 관할 하에 있는 산림에 배치된 산림학교를 말한다. 이 시설들은 도시개발국의 라켄베르그 산림관이 사회적 필요성을 역설하여 생겨난 것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6개이다.

일반 환경 단체 주관의 산림학교는 해당 단체가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설립한 것이다. 독일 산림보호회(SDW)가 운영하는 것이 독일 전국에 31개교가 있고 베를린시에는 1개교가 있다. 상근 근무자는 1~2명이고 필요한 경우 비상근 근무자를 배치한다. 모두 ABM 대책의 맥락에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의 약 80%정도를 주정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 금액은 1명의 상근자 월급과 기타 경상비이며,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로 충당한다. 수강료는 어린이 1인당 0.5~1.5EU(1300~2000원) 정도이고 어른들은 2EU(2600원)이다.

#### 마. 정규학교에서의 연장 교육: 그뤼나마트 슐레(Grün macht Schule/GMS)

베를린시는 산림학교와 같은 학교 밖 숲에서의 체험이 학교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GMS라는 단체이다. “녹색이 학교를 만든다” 혹은 “녹색이 교육을 만든다”라는 의미이다.

GMS는 콘크리트로 둘러쳐진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을 접하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교정(校庭)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공무원 신분인 두 사람의 정규 교사와 1명의 조경계획가, 1명의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정조성에 필요한 재정은 도시개발국에서 조달한다.

넓은 운동장을 크고 작은 아기자기한 숲, 놀이 공간 등으로 꾸며 학교 안에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베를린시의 835개 학교 중 450여개교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

### 3. 요약 및 결론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산림학교(Waldschule)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특히 숲의 죽음(Waldsterben)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숲의 의미와 중요성을 숲 체험교육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자연과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 것에서도 출현배경을 찾을 수 있었다.

산림학교의 이념은 학교의 일상에서 벗어나 직접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숲을 이해하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시키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전략은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직접적인 자연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상상력의 발달을 강조하는 환경 교육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베를린시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산림학교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설립을 주도하였고 필요한 경비 중 약 80% 정도를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시설로서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8회 정도 산림학교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은 전시, 숲과 산림학교를 통한 해설 안내, 강연, 실내 표본 활용 등 다양하며, 교사는 산림관(산림공무원), 자연과학자, 조경계획가, 교육자, 예술가 등이 있다.

이 교육은 기존 과목들의 개별 수업시간을 넘어서 방과 후로까지 확대된 파격적인 수업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이제는 정규수업의 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림학교는 어린이들이 숲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의 변화와 감수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정부로부터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설 운영자가 재정적인 면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